



세계의 에이즈

세계 5대 제약사, 아프리카에 AIDS의 할인

미국의 브리스틀 마이어스 스콧, 영국의 그락소 웰컴,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 등 세계적인 제약업체 5개사가 아프리카 지역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를 위해



이들 지역에서 판매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합의사항을 11일 유엔본부에서 발표했다. BBC 등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이들 제약회사는 아프리카 지역에 파는 에이즈 치료약은 제조원가 수준만 받기로 했다. 이는 현재 판매가격보다 85% 싼 것이며 일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적용했던 기존 할인가의 5분의1 수준이라고 제약회사들이 밝혔다. 유엔은 이번 조치가 2천2백만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는 에이즈 치료제가 많이 보급됐으나 가격이 비싸 아프리카 환자들은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5개 제약사에는 미국의 메르크와 스위스의 로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제약사는 그러나 아

프리카 지역에서의 판매가격 대폭 할인으로 제조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미국과 유럽 등지의 약값을 내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05/14)

아프리카-에이즈고아 생활 비참

전세계 HIV감염자의 70%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고 전세계 에이즈고아 1,370만명 중 1,070만명의 에이즈고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10년 후 아프리카에서 7,10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숫자는 중세에 페스트로 사망한 수의 3배이다. 평균수명도 45세로 떨어졌으며 에이즈고아들은 담뱃에서 자고 빈 병을 모으거나 쯤도독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옷을 구하기 위해 무덤을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05/29)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콘돔 개발

캐나다 연구진은 2일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콘돔'으로 불리는 살균겔(gel)을 개발해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라발대학 연구진은 이날 열린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에이즈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번 실험을 통해 이 살균 겔이 임신을 예방하고 성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면서 2년 후면 시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06/07)

에이즈로 세계노동인구 격감

아프리카 등지에서 만연되고 있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인해 향후 20년에 걸쳐 세계 노동인구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 밝혔다.

ILO는 또 에이즈로 인한 노동인구의 격감으로

아동의 노동참여가 확대되고 조기퇴직, 여성의 사회진출 억제, 노동인구의 평균연령 감소 현상이 초래되는 등 노동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 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ILO는 에이즈가 노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통해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하이티,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짐바웨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모두 2,400만명의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겨레신문/06/09)

에이즈 더 이상 특정계층 질병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관리하는 국내 에이즈감염자 1,112명 가운데 성직자 10명과 연예인 14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에이즈가 결코 특정직업이나 계층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한 보건전문가는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경우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직업별 에이즈환자 현황이 이날 특정 방송사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보건당국의 에이즈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환자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관리함으로써 환자노출을 워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겨레신문 /06/19)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에이즈위험 크게 감소

포경수술을 받은 남자는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는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소팀의 조사를 인용, 에

이즈바이러스는 주로 남성 성기 피부의 안쪽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부분의 피부가 절단된 상태라 에이즈감염위험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밝혔다. 포경수술로 인한 에이즈예방효과는 남자 동성애자간 성행위 위에서는 감염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일간스포츠/06/23)

에이즈 예방활동 리즈 테일러 '매리 앤더슨상 수상'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68)가 인도주의 활동을 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매리언 앤더슨상'을 받았다고 AP가 26일 보도했다. 테일러는 에이즈예방과 연구, 간호활동을 한 공로로 이 상의 3번째 수상자가 됐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테일러는 "몇 년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는 '에이즈'였다. 에이즈 희생자들의 인권을 위해 어렵고 힘든 투쟁의 시간이 필요했다." (조선일보/06/28)



개도국 에이즈퇴치費 과다-부채경감을 통해 짐 덜어줘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와 에이즈에 관한 유엔합동계획(UNAIDS)은 27일 전세계 에이즈 실태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도국에 대한 부채경감과 에이즈 구제를 연계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피터 피어트 UNAIDS 집행이사는 이날 오후 유엔사회개발 특별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럽유

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에이즈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빈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에이즈로 인한 부담의 95%를 짊어지고 있는 개도국들의 부채는 총 2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정부들은 보건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의 4배 이상을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06/28)

‘에이즈는 HIV가 유발’ 확인 선언문

전세계의 의학 및 과학자 5천 여명은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데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제13차 세계에이즈대회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더번선언’에 서명했으며 선언문은 7일 발간될 과학잡지 ‘네이처’에 게재한 뒤 에이즈대회 개막전날에 채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07/05)



에이즈 확산

미국 10대 HIV감염자 증가

지금 미국에서는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의 10대가 HIV에 감염되고 있다. 인구총태 통계군 중에서 정기적인 진찰검진이 가장 낮은 군이라서 HIV감염을 진단하는 것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13-21세의 신규 감염자수는 미국의 연간 신규 감염자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이 연령층에서는 성적 활동과 마약사용의 증가가

보인다. 그러나 10대의 감염자는 조기에 치료하면 성인에 비해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계신문/05/18)

베트남, 에이즈와 마약 갈수록 급증

정부의 집중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에이즈 환자와 마약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에이즈 환자수는 2만21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있는데 그 중 1천8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부 국가에이즈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기구와 연계해 에이즈 퇴치를 하고 있는데도 에이즈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중 3천500명은 현재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65.2%가 마약복용에 의한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또 마약관련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올들어 5개월동안 2,402건에 4,00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마약관련 범죄로 입건됐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06/07)

유엔 “에이즈 사망자 1900만명”...3400만명 감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은 1,900만명에 이르며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도 3,400여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이즈의 확산 때문에 경제 사회적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재정 및 정치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앞으로 막대한 피해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우간다 태국 브라질 등에서는 에이즈 퇴치 캠페인에 힘입어 확산 속도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작년에만도 540만명이 증가했으며 에이즈가 발견된 이래 모두 1,320만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잃었다. 15~49세의 젊은 인구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이 HIV에 감염된 나라는 16개국이며 모두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국가이다. 이 중 7개국은 성인 5명 가운데 1명 꼴로 HIV에 감염됐다. 남성보다 여성의 감염비율이 더 높았다. (연합뉴스/06/28)

국내 에이즈 감염 급증

국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감염자가 지난해 말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1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3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 110명(여자14명)이 추가로 확인돼 6월말 현재 전체 감염자 숫자가 1,173명(여성 186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중 21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고 28명이 숨져 현재 생존한 감염자는 9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1-6월) 신규 감염자가 1997년 56명에서 98년 64명, 99년 88명, 올해 11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1,021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81명으로 96%를 차지했으며 접촉 대상은 국내 여성이 432명, 국외 여성이 277명, 동성애 272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에이즈정보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한 사례가 2,930건이나 됐고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사례는 181만건에 달했다.

(경향신문/07/04)



에이즈 연구

미 국립보건원 후원 HIV백신 임상 큰 개시

감염자 치료목적으로 3년 동안 시행

HIV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HIV치료백신을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이 곧 미국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은 미국의 40개 센터에서 472명의 HIV 감염자를 등록시켜 약 2년간 지속시키게 되는데, 미국 NHI는 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NHI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질환 연구소의 AIDS부에 소속된 제임스 맥나 바라바사는 이 백신 HIV에 감염된 환자에서 HIV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계신문/5/18)

에이즈감염 방지백신 개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백신이 최근 호주에서 개발돼 임상시험을 거쳐 앞으로 10년 이내에 시판될 전망이다. 호주의 'CISRO 연구소'와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멜버른대학, 뉴캐슬대학,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공동연구진이 최근 에이즈 감염방지용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29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로부터 1,60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사람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신문/06/30) A